

극단 작은방

극장은 세상의 작은방



























극단 작은방

2018. 9. 28. - 9. 29.

«비극을 찾는 무대»
(신재훈 작)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예술단체 창.제작 프로젝트,
극단 작은방 신작 낭독 발표,
인천아트플랫폼

2018. 5. 10 - 5. 13.

«키스»
(윤영선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8. 4. 14. - 4. 15.

«비운새 라이브»
(이양구 작) 제2회 4월 연극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2018. 4. 11. - 4. 12.

«비운새 라이브»
(이양구 작)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작,
인천아트플랫폼

2017. 12. 14. - 12. 16

«인천의 보색은 녹색»
(신재훈 작)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작,
인천아트플랫폼

공연 연보

2017. 10. 13. - 10. 22.

«오늘은 모든 희망을»
(이철용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 '거짓말',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7. 8. 25. - 8. 27.

«옥출이»
(데이비드 루이스 작) 제4회
15분연극제 ×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2017. 8. 10. - 8. 13.

«비운새 라이브»
(이양구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6. 11. 17. - 11. 27.

«빨강의 보색은 녹색»
(신재훈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 '녹색극장',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6. 6. 23. - 6. 25.

«머리를 내어놓아라»
(신재훈 작)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작,
인천 다락소극장

2016. 6. 2. - 6. 12.

«머리를 내어놓아라»
(신재훈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봄페스티벌 '심시티',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5. 11. 26. - 11. 29.

«시간의 난극»
(신재훈 작)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작, 인천
다락소극장

2015. 10. 14. - 10. 18.

«하녀들»
(장 주네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 '상업극',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선정작,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5. 8. 19. - 8. 23.

«세상이 발각»
(신재훈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5. 4. 2. - 4. 12.

«시간의 난극»
(신재훈 작) 해화동1번지 6기동인
봄페스티벌
'총체적난극',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4. 9. 25. - 9. 28.

«정서진별곡»
(신재훈 작)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아웃큐
Platform outQ 선정작,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작,
인천아트플랫폼

2013. 11. 23. - 11. 24.

«드래곤과 수지»
(신재훈 작)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쇼 케이스, 인천아트플랫폼

2012. 12. 12. - 12. 30.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신재훈 작)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선정작,
연극실험실 해화동1번지

2012. 8. 15

«정서진별곡»
(신재훈 작) 공연분야 입주
작가 상반기결과보고 공연,
인천아트플랫폼

2011. 9. 30 - 10. 16.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신재훈 작) 다리정기공연시리즈2,
CY씨어터

2009. 10. 29. - 10. 31.

«극야(極夜)»
(이명연 작) CJ azit 창작예술지원
프로그램 일취월장, CJ azit

2009. 9. 28.

«극야(極夜)»
(이명연 작) CJ azit 창작예술지원
프로그램 일취월장 무대독회,
CJ azit

키스

2018. 5. 10 - 5. 13.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키스»는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의 참여작으로, 서로 닿을 수 없는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떨어져 있는 남, 여가 서로를 찾으려고 애쓴다. 이름을 부르고, 곳곳을 헤매지만 찾을 수 없다. 남, 여는 말을 멈추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남과 여. "에이, 씨팔"이라는 말은 욕일까, 아닐까. 서로 떨어져 있는 남녀는 "에이, 씨팔"이 욕인지 아닌지, 서로 욕이 오갔던 여러 상황을 추적하며 생각에 잠긴다. 조용히, 숨소리만 내며. 남과 여는 기분 나빴던 생각들을 잊기 위해 욕으로 뱉어낸다. 서로에게 기분 좋을 때 말을 하려고 잠시 침묵하지만, 계속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겨난다.

작	윤영선
연출	신재훈
배우	윤진성, 배윤범, 박옥출, 문가에
음악	이승호
무대	남경식
조명	노명준
의상	임경미
조연출	강수빈
사진	전진아



오늘은 모든 희망을

2017. 10. 13 - 10. 22.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사건을 찾고 싶어. 급방이라도 들이닥칠 그런 거.”
«오늘은 모든 희망을»은 송과 세모녀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거짓말'을 주제로 한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에서 공연되었다. 어떤 절망에서도 빛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이 시대에선 사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어쩌면 사건이 되지 못하는 '희망'을 과감히 버려버리는 것이 온전한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위협한 질문을 던진다. 희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아이러니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 본다.

작	이철용
연출	신재훈
배우	윤진성, 윤일식, 문가에, 홍여준, 양택호, 김소이
음악	이승호
무대	신승렬
조명	김상호
분장	장경숙
그래픽	윤종연
사진	전진아
영상	박영민
진행	임예슬



옥출이

2017. 8. 25 - 8. 27.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옥출이»는 제4회 15분 연극제의 출품작이다. 외로움이 극에 달해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옥출이의 이야기다. 실제 없는 로봇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는 옥출이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원제는 메리엔이다.

작	데이비드 루이슨
연출	신재훈
배우	박옥출, 양택호
주최	15분연극제 x 인친



비온새 라이브

2017. 10. 13. - 10. 22.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2018. 4. 11. - 4. 12.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
2018. 4. 14. - 4. 15.
제2회 4월 연극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몇 해마다 수해가 찾아오는 마을에 «비온새 라이브»가 있다. 비가 오면 물에 묻히는 아랫마을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대피하는 윗마을 사이에, 강 건너 읍내가 마주보이는 곳에 «비온새 라이브»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별장촌으로 변해가는 마을 갈림길에 «비온새 라이브»가 있다. 고등학생 하나가 전기 끊어진 «비온새 라이브»에서 혼자 음악이나 듣고 있다. 엄마는 비 올 때는 강 건너에 있더니 비가 그쳐 강을 건너와서는 산소가 쓸려내려간 자리에서 남은 유희를 찾고 있다. 수해복구를 도와주러, 끊어진 전기를 이으러 사람들이 바깥에서 하나둘 마을로 모여든다, 마을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아카펠라 뽀로디처럼.

작	이양구
연출	신재훈
배우	문가에, 박옥출, 양택호, 윤일식, 윤진성, 남재국
아카펠라 지도	정준
무대	남경식
조명	남경식
의상	배윤범
음향	이승호
사진	전진아



빨강의 보색은 녹색

2018. 5.10 - 5.13.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빨강의 보색은 녹색》은 환경을 주제로 한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 '녹색극장'의 참여작이다. 네 가족의 생과사를 다루는 에피소드를 통해 생태적 삶과 현대인의 관계를 다룬다.

- ① 인생 - 네 가족의 생과死
- ② 노동과 쉽
- ③ 자동차
- ④ 코끼리와 마흔
- ⑤ 아들들의 이야기

작, 연출	신재훈
드라마터그	유혜영
음악	이승호
배우	배윤범, 윤일식, 양택호, 문가에
무대, 조명	남경식
의상	이미나
분장	장경숙
그래픽	김수환
	(인천의 보색은 녹색)



머리를 내어놓아라

2016. 6.23.-6.25.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

2016. 6. 2.-6. 12.

해화동1번지 6기동인 봄페스티벌 '십시타'

해화동1번지 6기동인 봄페스티벌 '십시타' 참여작으로 각박한 도시에서 살기 위해 지불하는 삶의 비용을 다룬다. 우리의 조선 제20대 왕 경종의 무덤인 의릉. 봄을 맞이하여 연못 청소가 한창인데, 물이 빠진 연못의 바위 밑으로 거북이가 험곶게 기어나온다. 청소가 한창이라 정신이 없었던 걸까? 사람들은 작은 거북이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거북이를 연못 한쪽에 던져버린다. 내동맹이쳐진 거북이가 내는 걸까? 어딘가에서 들릴 듯 말 듯 소리가 들린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작, 연출	신재훈
배우	배윤범, 박옥출, 윤일식, 이선휘
음악	이승호
무대, 조명	남경식
의상, 소품	이미나
분장	장경숙
그래픽	맛갈손, 한주원
	(인천 공연)
사진, 촬영	최용석
기획, 홍보	양택호, 유혜영
	(인천 공연)
조명오퍼	고유빈



하녀들

2015. 10.14.-10.18.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 '상업극'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선정작

《하녀들》은 '상업극'을 주제로 한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가을페스티벌의 참여작이다. 하녀들은 자신들의 삶과 한참 동떨어진 마담의 삶을 훑내 내고, 그녀를 탐닉하고, 광적으로 사랑하다가 죽이고 싶은 증오에까지 이른다. 그들은 실제 현실을 파괴하면서까지 꿈꾸고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모습이 이 시대가 상업극을 소비하는 모양과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피곤한 현실에서 벗어나 우리의 욕망이 만든 상상을 부추기며 상업극에 몰입한다. 때로는 공연장에서의 2시간이 실제 삶보다 중요해지기도 한다. 현실에는 희망이 없지만 상상 속에서는 희망을 찾아낸다. 꿈을 꾸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하녀들이 다락방과 마담의 방을 오가며 벌이는 아슬아슬한 연극, 그리고 그 결말을 통해 우리가 상업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작	장 주네
번역	오세곤
연출	신재훈
출연	홍승비, 조옥원, 문가에
드라마터그	유혜영
음악	김승진
무대	신승렬
조명	남경식
의상	이미나
분장	장경숙
사진, 그래픽	김술
조연출	양택호
기획	지영관, 조하나

세상이 발각

2015. 8. 19.-8. 23.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해화동1번지 6기동인 기획초청공연 '세월호' 참여작이다. 세상이 발각 뒤집혀 바닷물이 무서운 기세로 육지로 밀려온다. 비서실장인 김실장은 대통령을 안전한 곳을 대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바칠 기세로 버틴다. "다시 뒤집으며 안되나요?"

작, 연출	신재훈
배우	박옥출, 안병찬, 양택호
무대	신승렬
조명	남경식
의상	이미나



시간의 난극

2015. 4. 2.-4. 12.
 혜화동1번지 6기동인 북페스티벌 '총체적난극'
 2015. 11. 26.-11. 29.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

시간에 대한 잡설(雜說)로 대한민국을 구성한다. 큰 사고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지 못한다. 두부 자르듯 시간도 잘라서 보관할 수 있다.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빠르게 시간을 보내지만 의미 없이 텅 비어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간은 금이 아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작	윤영선
연출	신재훈
배우	윤진성, 배윤범, 박옥출, 문가에
음악	이승호
무대	남경식
조명	노명준
의상	임경미
조연출	강수빈
사진	전진아



정서진별곡

2012. 8. 15.
 인천아트플랫폼 공연분야 입주 작가 상반기 결과보고 공연
 2014. 9. 25.-9. 28.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아웃큐 Platform outQ 선정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 선정

《정서진별곡》은 인천의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인천, 개항장의 꿈을 안고 가장 먼저 새로운 문화에 가슴을 열어젖힌 곳. 하지만 인천은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쓸쓸함이 감돈다. 이곳에 정서진이라는 관광지가 조성되어 문을 연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폐허가 늘어난 것이지만 현실과 무관한 과잉된 희망, 기대의 살포는 계속된다. 지금의 정서진의 모습이 작품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정서진에는 기대와는 달리 일몰을 보고 즐기려 하는 사람은 없다. 행한 조형물과 도시 계획의 뒷수습으로 보도블록을 깔고 조정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 참여자들만이 오간다. 허황된 꿈을 수습하기 정서진에 있는 사람들, 힘겹게 연명하며 남아 저지러놓은 꿈을 수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봤다.

작, 연출	신재훈
배우	서민성, 고기혁, 배윤범, 박옥출, 김도형, 임기향
음악	김승진
무대	신승렬
조명	박솔기
의상	이미나
영상	박상효
분장	장경숙
그래픽	한주원
조연출	김유리
제작	극단 작은방,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컬처버스

도래순과 수치

2013. 11. 23-11. 24.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쇼 케이스

차이나타운의 소문난 꽃미남 도래순과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최고 미인 수치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어느 사랑이 그렇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뜨거운 만큼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는 그저 그런, 뻔하고 뻔한 사랑이야기.

작, 연출	신재훈
작곡, 음악감독	김승진
배우	배윤범, 이협, 임기향, 조은
무대	The nomad theater project 신승렬
제작	극단 작은방, 인천아트플랫폼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2011. 9. 30.-10. 16.
 다리정기공연시리즈2, CY씨어터
 2012. 12. 12.-12. 30.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선정

아버지와 큰아들이 사는 집으로 작은아들이 결혼할 여자와 인사를 하러 온다. 예비며느리는 새로운 식구들에게 잘 보일 생각으로 온갖 요리를 내오고 곳은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런 며느리가 이쁘고 보기 좋다. 하지만 큰아들이 눈에 가시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부인 큰며느리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큰아들은 예비며느리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비며느리는 잘 익은 순무김치를 보관하려고 장소를 찾아보지만 냉장고도 없고 있고 여의치가 않다.

다리정기공연시리즈2, CY씨어터

작, 연출	신재훈
배우	서민성, 성열석, 김철진, 임기향, 김다인
무대	송태신
조명	김상호
의상	한복희
분장	이동민
조명 오퍼레이터	최윤정
공연진행	이운지
기획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작, 연출	신재훈
배우	서민성, 배윤범, 이협, 임기향, 김서영
무대	신승렬
조명	지형주
의상	한복희
분장	이동민
조연출	최윤정
사진, 영상	최용석

극야(極夜)

CJ azit 창작예술지원 프로그램 일취월장

CJ azit의 작품개발 워크숍 프로그램인 '일취월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으로 관객과 함께 독회를 갖고 의견을 듣는 등 작품 개발 과정을 통해 창작되었다. 한재라는 극작가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통해 권력 이면의 그림자를 다루었다.

작	이명연
연출	신재훈
배우	오대석, 김도형, 김슬기, 윤소현, 조하나, 고애리
무대	신승렬
조명	지형주
의상	이지혜
조연출	송정안

극단 작은방



www.instagram.com/box_room
www.facebook.com/theaterboxroom/
box_room@naver.com

